

궁극적인 질문들

존 블레인차드

궁극적인
질문들
존 블레인차드



EVANGELICAL PRESS

EVANGELICAL PRESS

Faverdale North Industrial Estate, Darlington, DL3 0PH, England

© Evangelical Press 2001

ISBN 0 85234 477 5

Originally published as *Ultimate Questions* © Evangelical Press 1987

Printed in Malta by Gutenberg Press Limited.



인생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 사소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엄청나게 중대하며 아주 심각한 것들도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 조차도 당신은 당신의 건강, 재정적 형편, 직업, 가족 또는 당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중대하고 궁극적인 질문은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건강, 경제적 안정, 안전한 직장, 행복한 가정과 밝은 미래 같은 것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며, 분명하고 확실하며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결국은 무익한 것들이다.

다음의 글에서 당신은 그런 관계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필요한지와 어떻게 그 관계가 가능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은 어떤 사람이건 물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중차대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이 글을 신중하게 주의해서 읽되, 필요하면 두 번 이상 읽어주길 부탁 드린다.

그리할 때 이 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당신에게 분명히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그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¹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¹ 논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증명’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는 매우 확실하다.

우주의 존재를 살펴보자.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부르는 것은 많은 의문을 야기시키며 해답도 없다. ‘빅뱅’(The Big Bang) 이론의 실제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우주가 생성되기 위해 필요한 원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빅뱅 이론 그 자체가 무(口)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² 진화론적 사고가 만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빙약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놀라우리만큼 복잡한 생명조직체들에 대한 설명은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다른 것으로 진화할 수 있겠는가?²

모든 다른 이론들도 빙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만족할 만한 설명은 오직 이것 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질들이 만나 우연하게 조화를 이루어 낸 결과가 결코 아니다. 전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미 존재하던 어떤 물질에서 스스로 자생되어진 것은 없다 하겠다. 창조는 시작이 있으며, 그것을 실현시키신 분은 하나님께서다.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해 셨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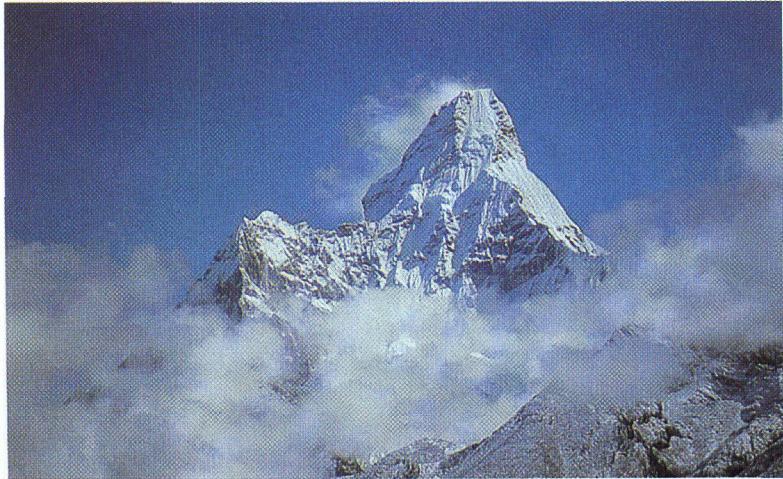
이 창조활동은 어디에서나 관찰될 수 있는 놀라운 질서의 세계를 통하여, 그리고 우주 바깥의 광대한 공간으로부터 극히 미세한 유기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결합시키는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더욱 더 확실시 되어진다. 설계에는 설계자가, 법에는 입법자가 요구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설계자이시며 동시에 그 자연법칙의 입법자이시기도 하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창조의 증거’는 인간 그 자체이다.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인격’이라고 불리는 것, 곧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어디서 이러한 속성들을 가질 수 있었는가? 진화나 우연은 그러한 것들을 생산해 내지 못한다. 가장 분명한 해답은 여기에 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靈)이 되었다. 사람은 우주의 창조자에 의해서 기이하고 놀랍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¹ 이 책에 있는 ‘기울임꼴’로 인쇄된 모든 글들은 32쪽에 표기된 성경 인용절을 가리킨다.

² 이것은 복잡하고 심오한 주제다.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해 더 알기를 원한다면 E.H. Andrews 교수의 *From Nothing to Nature* (Evangelical Press)를 참조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우선 우리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기 전 까지는 그분을 알 수가 없는 존재이다.

창조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밝히시는 주된 방법중의 하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도다.** 우주의 크기와 그 놀라운 균형, 다양성과 아름다움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다. 창조에서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능력과 경이로운 지성과 뛰어난 창의력을 보여 주신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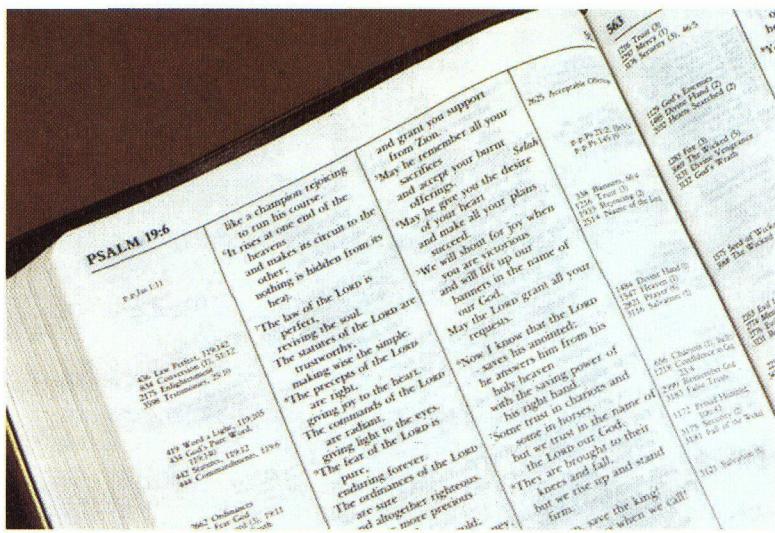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거의 말에 의존한다. 하나님 역시 성경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구약성경에서만 거의 4,000번(성경의 첫 다섯 책에서만 500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라는 표현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the Holy Spirit*)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주장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어떠한 문학 작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또 명백히 성취된 예언들은 찾아 볼 수 없다. 어쩌다가 우연하게 맞을 수도 있겠으나, 그 확률이 너무 낮아 이러한 것의 신빙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성경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 어떠한 책도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수 천년 이상 수억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사실을 개인적 경험들로써 증명해 왔다.

2,000년이 지나도록 어느 분야의 전문가도 이 성경의 진술을 거짓되다고 증명해 낸 적이 없다.³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곧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³ 성경의 신뢰성이 의심이 간다면 Brian Edwards의 *Nothing but the Truth* (Evangelical Press)를 읽어주기 바란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모두가 직면해야 하는 다음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보았고, 그 분께서는 창조세계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성경은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확신이 있는 대답들을 제공한다. 몇 가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물체나 힘, 또는 어떤 영향력과 같은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소망하시며, 또한 행동하신다. 다시 얘기해서, 그 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다. 그 분은 단순히 하늘나라 저 편에 계실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상 속의 흰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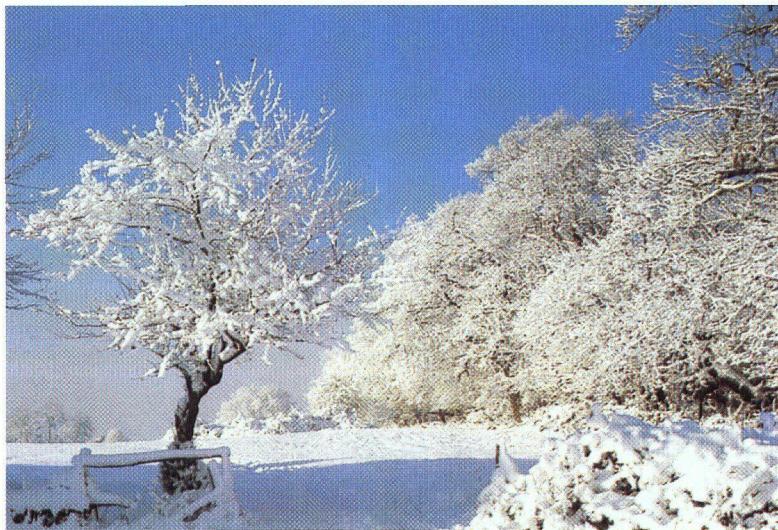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실로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정말 신비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 분의 각기 다른 인격체 - 즉, 성부(the Father) 하나님, 성자(the Son)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the Holy Spirit) 하나님 □ 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다. 이를 ‘삼위일체’ (the Trinity)라고 부른다. 이 세

분의 인격은 서로 구별되지만, 각자가 참으로 완전하고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며, 성령을 주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결국, 세 분의 다른 인격체들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육체로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 분은 봄이 없으시며, 크기나 모양으로 규정할 수 있는 특성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라는 얘기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이는 그 분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될 수 없으심을 또한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천지에 종만하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이는 당신이 행하고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도 포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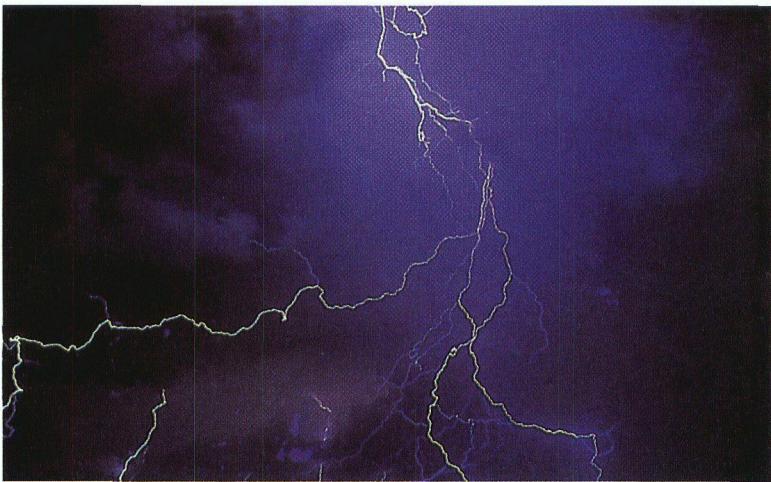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그 시작이 없으셨던 분이다.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the Lord)는 하나님의시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이라고 묘사하신다. 그리고, 그 분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나니…’. 그 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이나 혹은 어떤 물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로우시다. 그 분은 스스로 존립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희망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호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교할 만한 것은 없다. 실수와 결점이 절대로 없으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라고 말한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성경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견인자(Sustainer)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간청이나 논박의 여지없이 완벽한 공의로, 때에 따라서 그리고 영원히, 상주시고 벌하시는 심판자이시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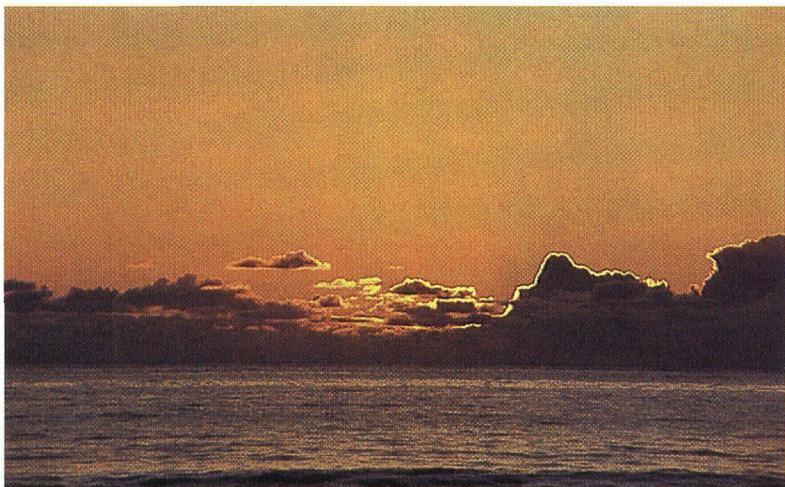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의 지식은 완벽하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포함,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의 지혜는 완전하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통치자이시고, 그의 통치밖에 있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나 얘기치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은 이 세상의 역사(history)를 쓰시고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work out)하신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고자 선택한 어떤 일에 누군가의 조언이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누구도 그를 막을 이가 없다.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스스로,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거짓말도 하실 수 없고, 변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분도 아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이 그의 성품과 상치되지 않는 한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자신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 나타내신 것들의 간단한 개요에 불과하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진리들이 있다 (22쪽에서 이 진리들 중의 하나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인간의 지식과 이성이 이 사실을 왜곡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만일 하나님의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이미 우리의 경배에 합당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현대생활의 압박감과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불안정한 탐색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는가?

첫째로 확실한 것은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편리한 꾸러미에 들어맞도록 생겨난 원자들의 우연한 축적물’ 그 이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은 고도로 발달된 동물이나 진화된 원숭이 이상이다. 동물들이 채소들과 다르고, 채소들이 무기물과 다른 것처럼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 크기에 있어서 인간은 태양이나 달 그리고 별들과 비교해서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은 우주에서 독특하고 영예로운 지위를 인간에게 주셨다.

이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번째 명령들 중의 하나에서 볼 수 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은 지구상에서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위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다.

또한 인간에게는 특별한 존엄성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크기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거나, 또는 인간이 조금은 그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소판’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적이고 이성적이며, 도덕적이고 완전한 본질을 가진 불멸의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간은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가운데 살았었다. 그때 인간에게 ‘정체성의 위기’라는 것은 없었다. 그는 그가 누구이며, 왜 세상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위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오직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의 그의 위치를 전적으로 기뻐하고, 만족해 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도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대로 초점화 한 그의 창조사역을 마치셨을 때,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확신할 수 있다. 창조 당시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서로간에,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 속에서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았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고 간단하다.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아담과 이브)에게는 큰 자유가 주어졌지만,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는 중대한 경고도 함께 주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가에 대한 이상적인 시험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도록 이브를 유혹했고, 이브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그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 시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아담과 이브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들은 동산나무 사이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 행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삶 대신에, 그들의 죄는 그들 자신을 수치스럽고, 무엇인가를 두려워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은 만일 인간이 불순종하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대로 하셨다.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한다. 즉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인간의 육체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죽은 영혼과 죽어가는 몸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은 그들의 몰락한 성품과 죄된 속성들을 물려 받았다. 그때로부터 강의 수원지에서의 오염처럼, 죄의 독성은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흘러 들었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을 명백하게 포함한 ‘모든’이라는 중요한 단어에 주목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만나지 못할 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또한 죽는다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경히 여긴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다.



오늘날의 많은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의 표제들은 세상이 혼돈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사회 안에서의 폭력, 불공평, 혼란과 악행에 대해 비난하기는 쉽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당신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전적으로 정직하고 순수하고 성실하고 사실이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아신다. 또한 당신도 알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본성적으로, 또 모든 행동면에서 죄인이다. 당신은 긴급하게 이 사실들과 결과들에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죄는 정말 치명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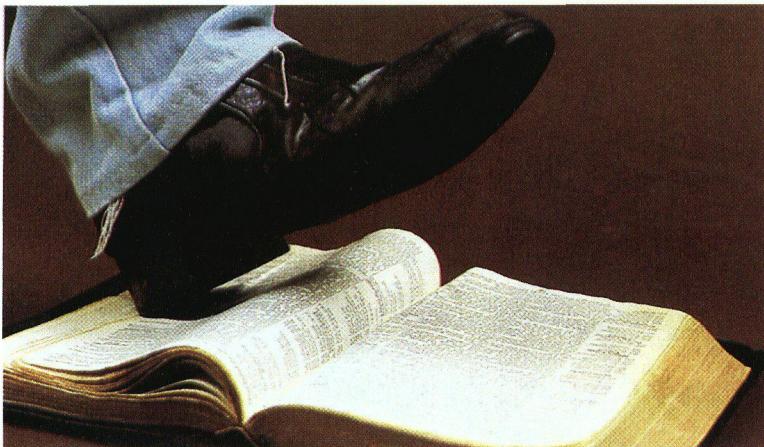
질병이 진단되었을 때, 그것이 치명적인지에 대한 물음은 중요하다. 죄로 인한 영적 질병에 관한 질문은 당연히 더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에 별 무리 없이 쉽게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를 ‘단순한 인간의 본성’으로 여기거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라고 말하며 쉽게 웃어 넘겨버린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논쟁점을 간과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한다. 다음은 성경이 죄인으로서의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정리한 것이다.

당신은 타락했다. 이것은 당신이 갈 데까지 다 간 악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도 아니다. 당신이 선과 악을 구분 못하고, 선한 일은 전혀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이 말은 당신의 성품과 성격, 즉, 생각, 의지, 감정, 의식, 기질과 상상력 등 모든 부분에 ‘죄’가 침범했음을 의미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 문제의 근원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있다. 당신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더럽혀져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훔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다. 이 목록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주시하라.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죄가 동등하게 심각함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죄의 개념을 살인이나 간음이나 약탈과 같은 것으로 제한 시키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죄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죄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완벽하지 못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당신인가? 만일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죄로 더럽혀진 존재다.

당신은 반항적이다. 성경은 ‘죄’가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불법이다라고 가르친다. 이 세상 어떠한 법도 당신을 거짓말하게하거나, 속이게하거나, 불순한 생각을 갖게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결국 당신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를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 관대하지 않으시다. 당신은 아주 하찮은 죄 한가지조차도 처벌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시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사후(□□)에 가해지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에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다.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과 견해들이 있다. 사람들은 우리 모두 소멸(사라져 없어짐)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죄지은 영혼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곳(역주: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연옥')이 있다고 믿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이러한 생각들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문구를 읽을 수 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때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전에서 영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이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성경에서 가장 통용되는 단어가 바로 '지옥'이다. 여기 지옥에 관한 네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

지옥의 존재는 사실이다. 지옥은 '교회에 의해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다.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있으며, 그 존재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지옥의 판결과 지옥으로의 던져짐을 말하고 있다.

지옥은 두려운 곳이다. 성경은 지옥을 고통 받는 곳, 풀무불, 영영히 타는 깨지지 않는 불의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밤낮 숨을 얻지 못하는 고통의 장소이다. 이는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사실이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유익한 것들로부터 단절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분의 이름이 베풀 수 있는 자극히 작은 위로와 은혜로부터도 제외된다.

지옥은 최종적인 곳이다.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은 ‘일방통로’다. 탈출구란 없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있다. 이 지역의 공포와 고독과 고뇌는 영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분은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공의로우시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지옥에서 그들을 거부하신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지옥에서 영원히 확증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공평하다거나, 공의롭지 못하다고 비난 받으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진리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신약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던져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교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을 종교적인 동물이라고들 부른다. 종교와 윤리 백과사전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은 인간이 그들의 종교에의 갈망과 자신들의 감성에 만족하려고 노력해 온 수백 가지의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들은 태양, 달, 별, 지구, 불, 물, 나무와 돌과 철로 만들어진 형상들, 물고기, 새, 동물 등을 경배해 왔다. 그들은 그릇된 상상력에서 비롯된 헤아릴 수 없는 신들과 영(□)들을 예배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성대하고 다양한 제사, 예식, 성례와 집회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종교’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때문에, 결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종교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종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보려는 인간의 노력이다. 그러나 인간의 최선의 노력조차도 흠이 있기 마련이므로, 이런 어떠한 시도도 부질없는 것이며, 하나님께 용인되지 못한다. 이점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시며, 종교는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종교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다. 당신의 인격과 덕은 절대로 당신의 죄를 없앨 수 없다. 선행들이 결코 악행을 제거할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종교적 노력과 경험들도, 예를 들면, 세례·명예·관심례, 세례, 성찬식, 교회출석, 기도, 은사, 시간과 노력의 봉사, 성경 읽기 혹은 그 외의 어떠한 고행이나 노력도 단 하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종교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 인간의 행동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징후(□□)일 뿐이다. 인간 문제의 핵심은 바로 ‘마음’에 있으며, 그 마음이 본질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해 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당신에게 위안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의(□)롭게 만들 수는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을까? 하나도 없다.

위에서 언급한 몇몇 종교의식들은 분명히 그 자체로는 좋은 것들이다. 예를 들면,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들을 의존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 행위를 자체가 너무도 무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의존한다는 것은 당신의 죄와 형벌을 더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이 있는가?

그렇다.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히 그 해결책을 제공해 주셨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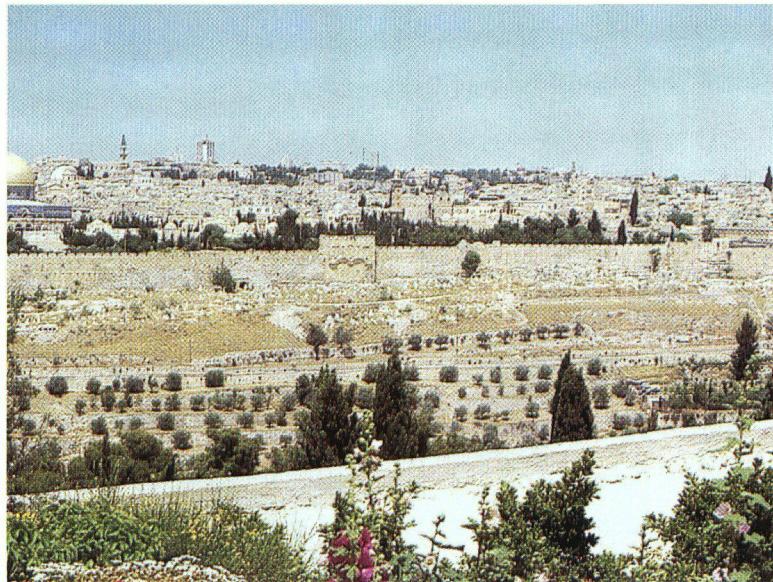
우리는 앞에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도 말한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영적이고 육적인 죽음의 형벌로부터 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 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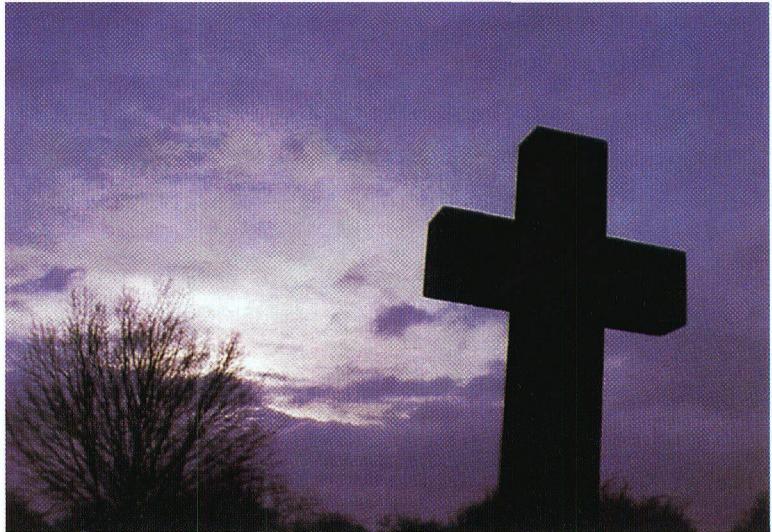
성자 예수님(God the Son)은 그 스스로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도 계속 남아 계신다. 성경은 이를 ‘그리스도안에는 신성(□□)의 모든 종만이 육체로 거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는 전에 하나님이 아니셨던 양 완전한 사람이 되셨으며, 동시에, 그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특별한 분이심을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확실히 보여준다. 그의 아기로서의 잉태됨 그 자체부터가

기적이었다. 인간 아버지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에 의해서, 그것도 처녀의 몸에 임태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가르침은 매우 특별했다.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의 행하신 기적 또한 특별했다. 그는 백성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 돌아 다니셨고, 몇몇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다. 그의 삶도 예외적이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셨다. 그는 진정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가뻐하는 자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순종하셨다. 이러한 그가 날조된 죄로 체포되었고, 거짓 증언으로 형벌을 받았으며, 결국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 그의 죽음은 전기한 구경거리도,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것들이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값인 죽음의 형벌을 아들을 보내 대신 치루시길 원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 기꺼이 순종하셨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그의 죽음도 그의 삶처럼 예외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의 죽음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왜 십자가가 중요한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거나, 그 의미를 설명해 준다. 그의 완벽한 삶이나, 놀라운 가르침 혹은 기적들이 성경말씀의 촛점이 아니다. 이들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왜 그의 죽음이 그다지도 중요하단 말인가? 그 이유는 그가 대속물(Substitute)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죄인(Sin-bearer)으로서, 또 구세주(Saviour)로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대속물 되신 예수님 그의 대속물 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준다. 죄인들은 모든 죄에 대해 심판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서 유죄이고, 영적으로 죽었으며, 어찌할 수 없는 곤경에 빠져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놀라운 구원계획의 일환으로서 성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자리를 천히 담당했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신 것이다.

죄인 되신 예수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의 댓가가 완전히 치뤄졌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애태게 부르짖으셨다. 그 침혹한 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로부터 등을 돌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형벌을 겪어야 했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보여주는가를 주시하라. 모든 죄는 처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자리에 대신 서셨을 때, 그는 마치 그들의 죄들을 자신의 책임인양 자신의 것으로 모두 받아들이셨다. 완벽한 삶을 산 한 사람이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의 값으로 사형을 당하신 것이다.

구세주 되신 예수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흘 후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실을 나타내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며, 사망의 권세는 이제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신한 그의 죽음을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형벌로서,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할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완전한 무상의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근거로서 받아들이셨음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 모든 사실들이 어떻게 해야 당신에게 적용이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온 당신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원하는가? 그 대가나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의 중대성을 납득하지 못한 것이다. 당신은 이 글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당신에게 보여주시기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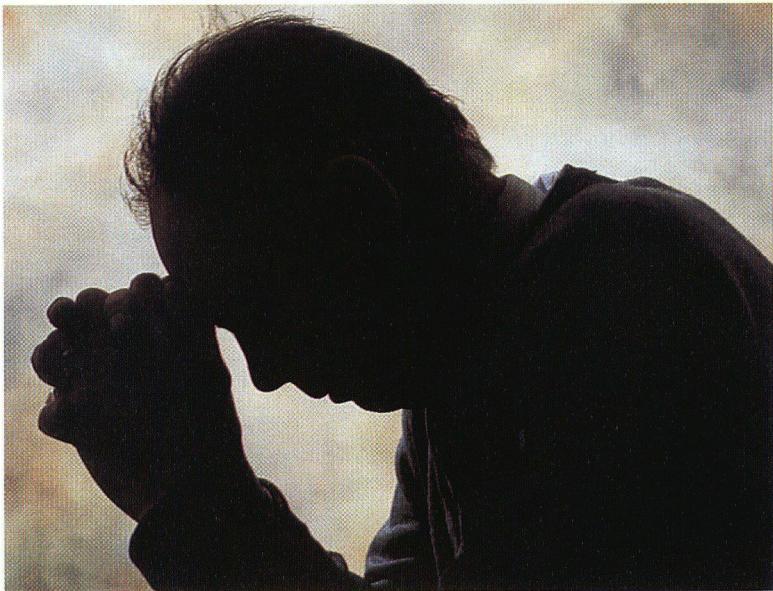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필요를 보여주셨다면, 당신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고,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당신은 회개해야 한다. 이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섬’을 의미한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당신 자신이 거룩하시며,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의 죄의 타락과 추악함에 대해 진정한 비통함과 수치스러움을 갖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 죄를 버리고자 할 것이고 삶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도전을 주신다. 당신은 이것을 해야 한다. 당신이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회개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새 인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먼저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랑 안에서 그가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셋째로,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이 당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의지하면서, 당신의 믿음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때, 아마도 당신의 자존심과 죄 된 속성이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선에 대한 가치관이나 종교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내면 속에서 저항해 싸울 것이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당신은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해서는 안되며, 오직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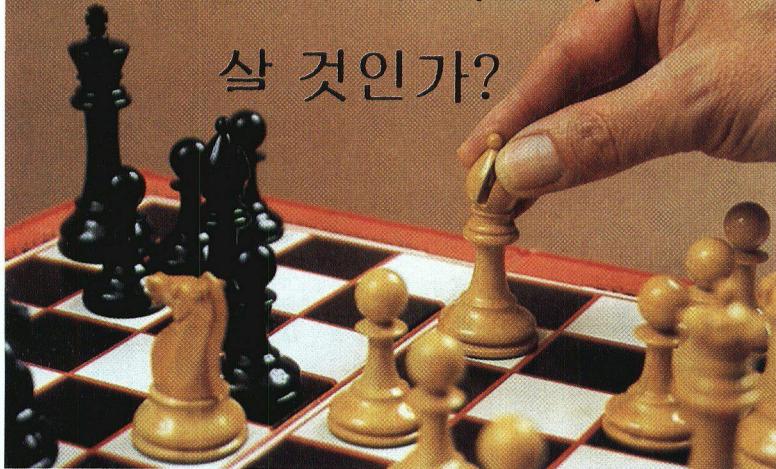
만일 하나님께서 현재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셨고, 이러한 소망을 주셨다면,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한다. 그에게 큰 소리로 기도하라. 이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이 유죄이고, 영적으로 죽었으며, 어찌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진 죄인임을 고백하라.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당신을 구원해주시기를, 그리고 당신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구하라.



제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만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인식한다면, 당신은 이 약속들이 바로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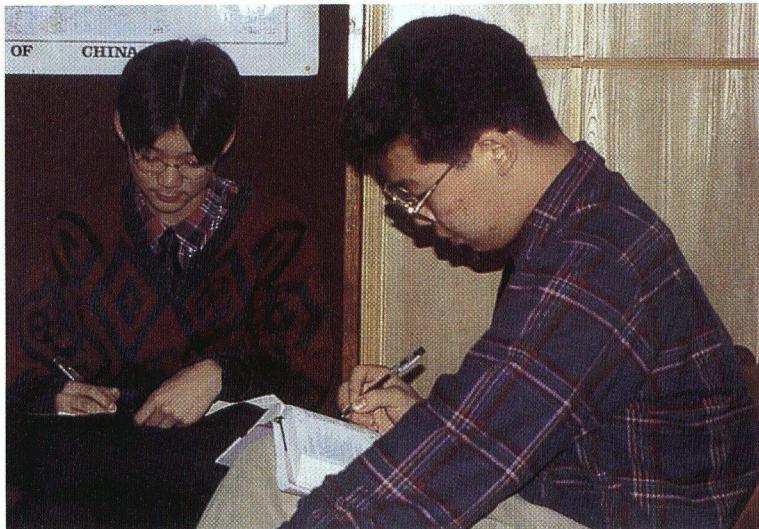
만일 당신이 현재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다. 성경은 이것을 ‘의(의)롭게’ 되었다고 부르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 믿는 사람이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당신은 영원히 안전하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친히 성령 안(in his Spirit)에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셨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저희 안에 거한다.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

당신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삶 속에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당신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는 네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기도 이제 당신은 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것, 곧 당신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은 그분을 경배할 수 있으며, 그분의 영광과 권능과 거룩하심과 사랑을 찬양할 수 있다. 당신은 매일 범하는 죄로부터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향한 그의 선하심을 인해 항상 감사할 수 있다. 당신이 매일의 삶 속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인 양 누리고 살던 많은 좋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그가 당신을 구원하신 것과 당신을 그의 가족으로 인정하신 것,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의 도우심과 능력,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예전의 당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다.

성경 읽기 기도로써 당신은 하나님께 말을 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당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이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31쪽에 언급되어 있는 무료 소책자를 신청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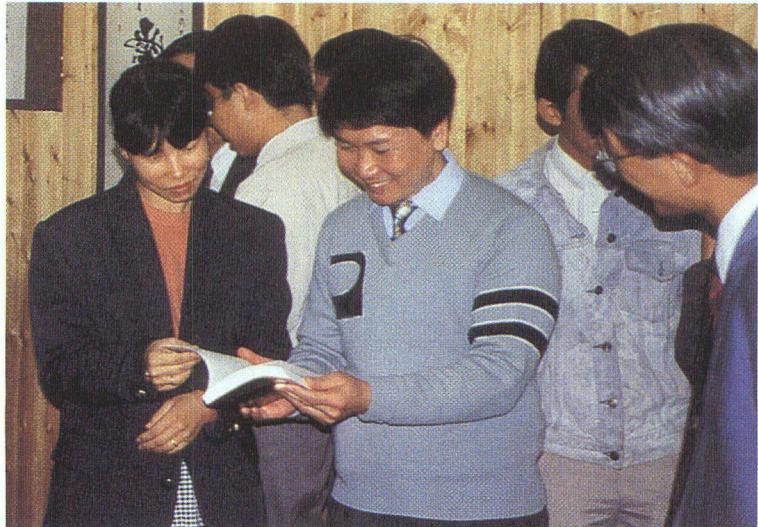


교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 그는 당신이 당신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오직 서로 권하여… 이것은

지역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가능하면 빨리 그렇게 되기를 이 필자는 권한다. 올바른 교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신은 분명 이 책자에 기록된 성경적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기를 원할 것이다. 이 소책자를 당신에게 준 사람이 아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면, 하나님에 관해 더욱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체험으로부터 많은 유익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들과 능력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교회가 필요하며, 교회는 당신이 필요하다.

예배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당신의 기득권이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라. 거룩함을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두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당신의 특별한 은사가 사용될 수 있기를 구하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라. 마지막으로, 주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가슴 벅찬 체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당신을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라.



이 책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To: John Blanchard, c/o. Evangelical Press, Faverdale North Industrial Estate, Darlington, DL3 0PH, England). 그러면, 이 책자의 저자가 직접 쓴 마가복음 성경공부 교재인 *Read, Mark, Learn*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사람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4쪽	12쪽	요한일서 4:8
히브리서 11:6	창세기 1:27	요한일서 4:14
창세기 1:11	창세기 1:28	골로새서 2:9
히브리서 11:3		
시편 33:9	13쪽	23쪽
	창세기 1:31	누가복음 4:32
5쪽		마태복음 4:23
사도행전 17:24	14쪽	히브리서 4:15
창세기 2:7	로마서 5:12	마태복음 3:17
시편 139:14	창세기 2:17	사도행전 2:23
6쪽	창세기 3:6	마태복음 20:28
욥기 11:7	창세기 3:8	
시편 19:1	15쪽	24쪽
로마서 1:20	로마서 5:12	로마서 5:8
7쪽	요한일서 1:8	베드로전서 3:18
베드로후서 1:21	로마서 3:23	
시편 19:7-8		25쪽
디모데후서 3:16	16쪽	마가복음 15:34
데살로니가전서	예레미야 17:9	로마서 1:4
2:13	마가복음 7:21-	사도행전 1:3
22	22	로마서 6:9
8쪽	17쪽	26쪽
예레미야 10:10	잠언 20:9	사도행전 20:21
이사야 44:6	요한일서 3:4	사도행전 26:20
빌립보서 2:11	시편 7:11	마태복음 16:16
요한복음 1:1	로마서 14:12	로마서 5:6
고린도후서 3:18		
9쪽	18쪽	27쪽
요한복음 4:24	히브리서 9:27	히브리서 7:25
요한복음 1:18	데살로니기후서	로마서 10:9
예레미야 23:24	1:9	로마서 10:13
시편 90:2	마태복음 23:33	
요한계시록 1:8	마태복음 5:9	28쪽
말라기 3:6	누가복음 16:28	로마서 5:1
사도행전 17:25	마태복음 13:42	사도행전 10:43
	이사야 33:14	요한복음 1:12
10쪽	19쪽	로마서 8:1
출애굽기 15:11	마태복음 3:12	로마서 8:11
사무엘상 2:2	마태복음 22:13	요한일서 1:9
하박국 1:13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1:16	14:11	29쪽
이사야 30:18	누가복음 16:26	에베소서 5:10
시편 97:2	사도행전 17:31	베드로전서 2:2
히브리서 4:13	마태복음 23:33	히브리서 10:25
로마서 11:33		
11쪽	20쪽	30쪽
시편 135:6	이사야 64:6	신명기 10:12
에베소서 1:11		디모데후서 1:9
다니엘 4:35	21쪽	데살로니기전서
예레미야 32:27	에베소서 2:9	4:3
욥기 5:9	욥기 14:4	에베소서 2:10
욥기 37:23	22쪽	마태복음 5:19
	요한복음 3:16	베드로전서 2:9

궁극적인 질문들

존 블레인차드

건강, 재물, 가족관계, 그리고 미래-
인생은 이러한 물음을으로 가득차 있다.

더 심오한 질문들도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인생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그러나 정말로 궁극적인 질문들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 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인가?

이 책자는 이 중요한 질문들에 과감히 접근해서,
그에 대한 답을 간단하고 명료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공해 준다.

이 책자를 주의깊게 읽어주기 바란다.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줄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EVANGELICAL PRESS

ISBN 0 85234 477 5

(Korean)